

#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

-‘신해방지구’ 『개성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모니카\*\*

## 목 차

- I. 머리말
- II. 다양한 배경의 복합적 감정을 가진 ‘신해방지구’ 주민들
- III. 북한의 감정 통제: 공적(公的) 감정의 위계화와 신체화
- IV. 공적 감정의 확산·공유와 감정 공동체
- 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글은 북한의 인민 만들기를 감정 정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이다. ‘신해방지구’에서 발행된 조선노동당기관지 『개성신문』에 등장하는 감정 언어들과 서사를 분석하여, 북한 사람들의 공적 감정들의 특징을 다룬다. 북한은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감정을 통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포가 아닌 적개심, 이승만 정권기의 경험은 수치와 실망, 북한 인민으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행복과 명예감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감정들이 키워지거나 억제되었다. 이 감정들 간에도 위계화가 이루어졌는데, 최고 단계의 감정은 행복과 명예감이었다. ‘불타오르는 적개심’, ‘뼈저리게 누우치는 수치스러운 과거’, ‘눈시울 뜨거워지는 행복’과 같이 감정에 대한 묘사는 늘

---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0-361-A00017).

\*\* 韓모니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투고일 : 2018. 11. 11. 심사완료일 : 2018. 11. 30. 게재확정일 : 2018. 12. 20.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261>

신체적 느낌들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연상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신체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전선동이 전개되었던 거의 모든 공간과 매체는 감정 정치가 펼쳐지는 장이었다. 북한은 신해방지구의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감정을 가진 개인들을 ‘북한 인민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을 표출하는 감정 공동체로 만들어갔다.

**핵심어** | 북한 인민, 감정 공동체, 적개심, 공포, 수치심, 비참, 행복, 명예감, 선전선동, 한국전쟁

## I. 머리말

2002년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에서는 “밝게 웃어라”라는 카드섹션을 배경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활기찬 모습과 희망이 체조를 통해 묘사된다. 당시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기라 부르던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막 지났을 때였다. 그리고 남한의 언론도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했던 존재로 어린이들을 부각시키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기체제 하의 어린이들의 행복을 묘사하는 집단체조를 대내외에 내보인 것이었다.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웃음·희망·행복이라는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이 집단공연을 통해 묘사된 것인데, 필자는 이 영상을 접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이 들었다. 이를 단순히 ‘세뇌’나 ‘지지’와 ‘동원’이라는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다. 또한 이것이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개인의 감정을 활용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 남북분단에 대한 연구를

심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sup>1)</sup> 그리고 그 시작으로 북한인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 연구를 시도하려 한다. 그동안 우리가 ‘세뇌’나 ‘비이성’ 정도로 치부하고 간과해온 북한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적인 영역의 감정<sup>2)</sup>이 집단적·공개적인 영역의 감정으로 만들어져, 북한의 체제 유지와 인민 만들기에 활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황해도 신천 사건의 활용과 반미주의를 들 수 있다. 신천 사건은 한국전쟁기 피점령 및 탈환의 반복,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및 인근 지역의 영향, 해방 이후 남북관계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결합·작동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sup>3)</sup> 북한은 이 사건을 매우 단순화시켰고, 1950년 가을 피점령기에 신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천여 명의 주민이 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과거의 사건이나 역사를 특히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사람들

- 
- 1) 해방 이후 남북한은 상호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국민/인민 만들기를 진행해왔다. 이는 곧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져왔음을 의미한다. 서로를 증오하고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남북분단이 인간 개인의 삶과 심성에 새겨진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남북분단에 대한 연구는 심성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연구만이 아니라 제도가 인간의 심성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각종 교육과 선전선동 등에 대해서도 인간의 심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 2) 일반적으로 감정을 개인적·생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양사 분야에서는 그동안의 이성(reason) 중심의 연구로부터 벗어나 감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양의 감정사 연구의 전개와 이론적 맥락에 대해서는 문수현, 「‘감정으로의 전환(Emotional turn)’?: 감정사 연구 성과와 전망」, 『서양사론』 96, 2008; 김학이, 「감정사 연구의 지평: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연구』 28, 2014; 이진일, 「지리화된 민족주의와 영토 - 감정사적 접근」, 『동북아 영유권 갈등과 ‘지리화된 민족주의’」,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8 참조. 최근 한국의 문학 분야에서도 ‘정동(affect)’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정 연구의 시각 및 스펙트럼, 범주, 방법 등은 다양하다.
  - 3) 한국전쟁기 황해도 신천 사건에 대해서는 한모니까, 「‘봉기’와 ‘학살’의 간극: 황해도 신천 사건」, 『이화사학연구』 46, 2013 참조.

의 증오심을 유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데, ‘무엇’에 반대하는 감정(이나 사상)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며 ‘무엇’이 사라지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반미’만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지지자로 만들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을 활용했다. 바로 수치심, 실망, 안타까움, 감격, 행복, 명예감과 같은 것들이다.

북한의 감정을 활용한 인민 만들기는 1950년대 ‘신해방지구’의 예로부터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에 38선 이남지역이었던 개성·개풍·장단일대와 옹진·남연백 등지를 편입하였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개성신문』(조선노동당 개성시위원회 기관지, 1952. 2. 창간)을 간행했다. 그런데 이 시기 『개성신문』을 잘 살펴보면 기사의 상당부분이 감정어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승만 정부에 대한 강한 ‘적개심’, 이곳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따뜻한 배려와 환대’,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감격’과 ‘행복’ 등이다. 이 감정들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느끼도록·표출하도록 키워진 공적 감정이다. 그리고 북한 인민으로서 반드시 느껴야 할 감정에는 외부(미국)에 대한 적대감만이 아니라 체제내부에 대한 여러 긍정적 감정들이 포함되어있음을 짐작케 한다. 신해방지구 주민에 대한 인민 만들기는 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제도와 결부된 감정의 측면에서도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1950년대 신해방지구의 사례는 북한의 감정 정치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신해방지구의 변화 및 역사성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sup>4)</sup> 크게 보면 주로 제도사적인 연구들이었

4) 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남북한에서의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북한의 사회개혁·조직화·동원 경험을 통한 인민 형성, 모범인민의 창출과 확대, 한국전쟁과 반미주의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한편, 신해방지구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전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개성지역의 남북접경지역으로서의 변화를 다룬 연구, 북한지방사의 측면에서 북한의 개성 정책을 다룬 연구,

고, 감정의 측면에서 접근된 적은 없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삼아 신해방지구에서 전개된 감정 정치를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의 주된 자료는 『개성신문』(1952~1956)이다. 한국전쟁 후반~정전 직후에 해당하는 이 시기를 살피는 이유는 이 때 발행된 『개성신문』에 감정어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북한의 감정 정치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첫 연구로서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성신문』에 나타난 감정어들과 서사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요구한 감정들과 그 시대적 배경 및 맥락, 활용, 특징 등을 살펴보려 한다.<sup>5)</sup> 북한 인민으로서 느껴야할 공적 감정

- 
- 신해방지구와 수복지구 탄생 및 제도 이식을 비교한 연구,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에 대한 편입 정책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開城: 교류와 갈등의 이중 공간」, 『學林』 31, 2010; 박소영, 『개성 각쟁이의 사회주의 적응사』, 선인, 2012; 이준희, 「한국전쟁 前後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촌사회 변화」,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한모니까,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2015; 한모니까,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정책과 그 특징」, 『역사문제연구』 36, 2016; 한모니까, 「남북한 ‘수복지구’·‘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비교: 국민/인민 전환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23, 2018.
- 5)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일차적인 이유는 현재 또는 과거 북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및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 면에서도 국가가 표준화한 공적 감정과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이중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 전자는 집단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이며, 후자는 드러내지 않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은 병존할 수도 있고, 공적 감정이 사적 감정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사적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의 사적 감정에 대한 규명이 진정한 연구의 목표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라도 공적 감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적 감정은 감정사 연구를 기뻐한 미국의 역사가 피터 스텐스가 말한 ‘emotionology’(표준적 감정·규범적 감정)와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때 감정 규범은 분명히 시대성을 가지며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Peter N. Stearns, “Emotionology: Clarifying the History of Emotions and Emotional Standard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0, 1985. 감정사에서 피터 스텐스의 ‘emotionology’의 의미에 대한 소개는 김학이, 앞의 논문, 2014, 228~230쪽 참조. 피터 스텐스는 주로 미국의 사회·기업·가정의 감정 규범을 다루었지만, 이 연구는 국가가 표준화한 감정 규범을 다루고자 한다.

들과 감정 간 관계, 감정의 신체화, 감정의 학습과 확산을 통한 감정 공동체의 탄생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사적 연구들을 보완하고, 북한 연구와 방법을 다양화하기를 바란다.

## II. 다양한 배경의 복합적 감정을 가진 ‘신해방지구’ 주민들

신해방지구에 해당하는 개성, 개풍, 장단, 판문과 황해도 옹진, 청단, 강령, 연안, 배천 등의 지역은 38도선 이남에 위치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 3년과 이승만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6~9월 북한인민군에 점령되었다가, 10~12월 남한에 탈환되었고, 1951년 봄 이후 북한에 재점령되었다. 북한은 38선 이남 서부지역을 재점령함과 동시에 통치에 들어갔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이 지역들을 ‘신해방지구’라 명명했다. 즉 복잡한 전투와 전선의 이동 끝에 북한이 재점령하게 되었고, 이곳 주민들도 북한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신해방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곳 주민들의 구성도 크게 변화했다. 인구가 급감했고,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복잡한 전투 과정에서 물질적·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었으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재자의 자리를 대신했다. 비록 인구는 이전에 비해 훨씬 적어졌지만, 이곳에 남은 사람들이나 외지인의 ‘사연’은 다양했다.

이 지역은 인구 면에서 ‘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북한 당국이 개성 인구의 50~70%가 월남했다고 보았을 정도였다.<sup>6)</sup> 감소한 인구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부재자의 발생 이유는 다양했다. 전쟁 중에 북한 ‘의용군’

---

6) 리택정, 「신해방지구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철저히 리행할 데 대하여」, 『인민』 1호, 1954, 95쪽.

으로 동원되었거나, 잔혹행위와 미공군의 폭격 등에 의해 사망했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월남한 사람들이 있었다. ‘툽질전쟁’이라는 표현처럼 전선의 급격한 오르내림과 잔혹행위의 반복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북쪽으로 혹은 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미군의 원폭투하 소문을 듣고 남쪽으로 피신하거나 일시적으로 남한에 남은 사람들도 많았다.<sup>7)</sup>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탄압을 우려한 사람들, 남한의 군·경·반공단체와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현지에 남은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도 다양했다.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떠난 사람들로부터 남겨진 가족들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오랜 사회경제적 특징에서 유래한 상공업자도 많았고, 반공주의적이었지만 미처 월남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sup>8)</sup> 해방 직후 국가 건설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 갈등이나 38선 충돌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sup>9)</sup> 현지에 남은 여성들은 ‘의용군’의 아내, 폭격이나 잔혹행위로 가족을 잃은 여성, 월남한 남편이나 가족을 둔 여성들이었다. 비/자발적으로 동원된 ‘의용군’의 아내들은 ‘영예로운’ 인민군 후방 가족으로 불렸다. 반면, 월남자 가족 여성들은 남한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의심을 받는 처지에 있었다. 또 전쟁 중 잔혹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깊은 갈등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부재자의 자리를 채운 것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배경도 다양각색이었다. 이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북한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들,<sup>10)</sup> 정책적으로 이주된 타지의 빈민·전재

7) 김성보, 앞의 논문, 2010, 80쪽.

8) 북한은 신해방지구에서 주민 구성의 특징으로 월남자 가족과 상공업자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반공주의적 사고 등을 우려하고 의심했다.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 인식에 대해서는 한모니까, 앞의 논문, 2016, 389~396쪽 참조.

9) 해방 직후 개성의 국가건설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김성보, 앞의 논문, 2010, 68~77쪽 참조.

민들도 있었다. 남쪽으로 피난하다가 길이 막혀 정착하게 된 이북 사람들, 고향 가까운 곳이라 찾아온 이남 사람들도 있었다.<sup>11)</sup>

이와 같이 전쟁 직후 신해방지구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기 경험,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나 적대성 여부 및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간에는 복잡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 대체로 관리감독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외지인들과 원주민들 간에, 원주민들 중에서는 잔혹행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나 월남자 가족과 인민군 복무자 간에, 토지를 분배받은 빈농과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부농 및 상공업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는 그들의 북한, 남한, 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한 정세 인식, 나아가 개개인의 감정까지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해방지구 주민들에 대해 북한은 의심과 차별, 포섭과 동원 정책을 병행했다. 북한은 반체제적 성향을 갖는 주민들을 의심·통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역사회 내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은 이곳 주민 전체를 통제하고 포섭하면서 전후복구사업에 동원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은 이곳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강조하여 선전했다. 현물세를 일부 면제 하거나, 민간인 삼포 운영을 장려하거나 교육기관들을 확장하는 정책이 대표적이었다.<sup>12)</sup>

---

10) 한모니까, 앞의 논문, 2015, 246~247쪽.

11) 송경록,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 푸른숲, 2000, 126쪽.

12)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52년도 조기작물 현물세를 일부 면제함에 관하여」(1952. 6. 20. 내각결정 제114호), 「비무장지대 분계선 립접지역의 전제 농민들에게 1953년도만기 작물 현물세와 국가 대여곡 등을 감면할데 관하여」(1953. 9. 17. 내각결정 제161호), 「빈농민 및 령세 어민들의 경제 형편 개선 대책에 관하여」(1953. 2. 18. 내각 결정 제26호), 「개성지구 민간 인삼포 운영에 관하여」(1953. 8. 24. 내각 결정 제152호), 「개성지구 인민교육기관들을 확장하며 송도정치경제대학의 설립을 보장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정책들을 ‘따뜻한 시책’·‘특별한 배려’라 강조하면서 매우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북한은 바로 감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긴 부재자와 남은 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외지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자 했다. 이는 제 각각의 사연이 있는, 즉 다양한 배경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한 감정을 가진,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일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공동체, 즉 감정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 Ⅲ. 북한의 감정 통제: 공적(公的) 감정의 위계화와 신체화

#### 1. 적개심 또는 공포

적개심(Hostility)은 북한인민의 감정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기저에 있는 감정 중 하나로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다. 북한의 반미 감정의 핵심은 적개심이며, 북한에서 미국은 곧 싸워야 할 대상,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대상이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어떻게 수식되고 활용되며, 다른 감정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개성신문』에서 그려지는 미국의 이미지는 “인간도살자 미제”, “평화적 주민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학살하고 조선천지를 피바다로 만든 자”이다.<sup>13)</sup> 또한 ‘미국놈’은 “사랑하는 남편(가족)을 생지옥으로 끌고간 원쑤”이자,<sup>14)</sup> 원망을 일으키는 분계선의 설정 주체이자 황폐화된 농경지를 만들고

---

할 데 관하여』(1953. 9. 8. 내각결정 제160호)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보, 앞의 논문, 2010; 박소영, 앞의 책, 2012; 한모니가 앞의 논문, 2016 등 참조.

13) 「미제가 조작한 소위 [만행] 소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상인 리홍복, 『개성신문』, 1953. 12. 18.

남북으로 나뉜 주민들의 왕래를 막는 존재이기도 하다.

원망스럽게도 가로 막힌 분계선 때문에 남쪽에선 많은 땅들이 그대로 묵고 있으며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길을 가로 막는 미국놈과 리 승만 도흥을 하루 속히 우리 조선에서 몰아 내야 한다.

미국놈의 항공 비적이 그 알뜰하던 내 집마저 다 태웠다. 생각하면 도대체 그놈들을 인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일삼고 있는 리 승만 도흥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싫어하며 게다가 『북진』을 떠벌리고 있는가? 도대체 조선사람의 량심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다.<sup>15)</sup>(강조는 필자)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이미지와 적개심은 신체 감각화되었다. 단적으로 ‘인간도살자’·‘피바다’ 등의 수식어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시각적인 표현들로서, 미군의 잔혹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미국놈의 항공 비적이 내 집마저 다 태웠다’는 사실의 묘사를 넘어 시각적으로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 ‘끌려간’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가족)이기에 그 원망과 분노를 더욱 크게 한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단순히 증오나 분노로 설명되지 않고 ‘불타야’했다. 북한은 ‘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격발’시키도록 했고,<sup>16)</sup> 그에 따라 적개심 앞에는 항상 ‘불타는’이라는 수식어가 위치했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매우 뜨거운 느낌이 동반된 적개심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개성신문』은 주로 미군의 폭격으로 황폐화된 농경지를 갖게 되었거나 사망한 가족을 둔 주민들, 월남자 가족들의 ‘적개심’을 보도하면서 고조시켰

14) 「안타까움은 남하한 남편의 처지뿐 - 땅의 주인된 김영주 여자」, 『개성신문』, 1954. 7. 3.

15) 「모든 힘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해 바치겠다 - 판문군 대령리 11반 서효중」, 『개성신문』, 1956. 7. 4.

16) 「학교 교육사업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개성신문』, 1953. 6. 16.

다.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에 점령된 상황이었으므로, 이곳의 사회경제적 형편은 황폐화되다시피 했고, 북한당국으로부터는 ‘간첩’·‘암해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다른 북한 지역의 주민들과는 다르게 반공주의·식민·봉건잔재가 농후하다는 시선을 받는 상태에서 이곳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 고조는 전쟁의 개시 책임이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북한에 대한 불만들, 가족과의 이별 및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 특히 미공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폭격이라는 표현과 전쟁 중 실제 경험은 두려움과 무서움 등의 공포를 일으킨다. 또 신체적·감정적인 고통을 연상케 한다. 더구나 신해방지구의 한 시인이 “김포, 파주 상공엔 비행기 폭음 소리”라고 노래했듯, 김포, 파주 일대의 미공군의 비행 및 폭격 연습 소리들은 임진강을 건너 북한지역에 고스란히 들릴 정도였다.<sup>17)</sup>

하지만 『개성신문』에서는 좀처럼 미국(군)의 폭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험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적개심을 일으키는 신호(信號 signal)로 다루어진다. 즉 미군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미워하고 싸워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 공포의 감정은 억제되고 지워지며 적개심이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황폐화된 농경지나 가족의 죽음과 이별 등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지만, 『개성신문』에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로 사용되었다. 분노·원망의 감정도 “미국놈과 리승만 도흥을 몰아 내야”한다는 싸우고자 하는 감정으로 직결되었다. 학살과 죽음, 이별 등도 두려움과 무서움 등의 공포, 불안, 고통,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원한과 증오와 분노를 포함하는 적개심이라는 감정에 위치하게 되며, 이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맥락화되었다.

17) 「림진강반에서-박석정」, 『개성신문』, 1956. 1. 8.

신해방지구 주민들에게 공포나 슬픔은 용납되지 않았다. 차이가 있었다면, 공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sup>18)</sup> 슬픔은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슬픔은 적개심으로 이어지는 하위의 감정에 위치 지어졌다. 그리고 다시 적개심은 희망과 애국심 등으로 이어지는 중간 감정에 위치 지어졌다.

북한이 만들고자 한 새로운 인간형은 미제·이승만 정권과 싸우는 투사였으며, 195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는 반혁명과 싸우는 투사였다. 북한은 무기력, 패배감, 초조, 고독, 절망, 영탄, 통곡이나 향수·애상에 젖어 있는 인간형을 그리는 작품들을 비판했고, 이와 관련된 감정들을 억제시켰다.<sup>19)</sup> 『개성신문』 속 신해방지구 사람들의 서사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슬픔이나 한탄에 머물지 않고 희망의 결말로 이어진다.

미국놈의 썩썩이는 우리 집을 불살라 버렸지만 지금은 그전보다 더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

지금도 눈만 감으면 남조선 어느 곳에선가 배고파 허덕일 당신의 생각이 앞서서 글썩이 바로 나가지 않아요.

영숙 아버지!

그러나 슬퍼하지만 앓으렵니다. (……)

농사에 더 힘을 써서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통일시켜야 당신을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찼 뿐이었어요.<sup>20)</sup>(강조는 필자)

---

18) 공포의 감정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감정 중 하나이다. 공포는 패배감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변화의지로 이어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북한의 공포 감정 억제에는 공포가 패배감이나 무력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19)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부르쵸아 사상 여독과의 투쟁을 강화하자」, 『개성신문』, 1956. 2. 22.

20)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개성신문』, 1956. 3. 4.

우리 조선 인민을 해롭히는 원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지요. (……)

은희 아버지!

오늘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송악산 기슭 고향을 그리워할 당신의 심정을 생각하는 안해가 어떻게 가슴 아픔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앉아서 한탄만 하지 않아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선언은 우리가 하루 속히 만날 수 있는, 만나서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을 더욱 확신케 하여 주었어요. 나는 당의 선언을 받들고 공화국 북반구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당신과 만날 수 있는, 평화적 조국 통일을 빨리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어떠한 원썬놈이라도 당신과 나를 영영 갈라 놓 수는 결단코 없어요.<sup>21)</sup>(강조는 필자)

위의 자료는 월남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글의 전개가 유사하다. 적에 대한 분명한 지칭에서 나아가, ‘미국놈의 싹싹이’가 집을 태웠어도 더 좋은 집을 지었듯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말하고 있다. 아내들은 ‘남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에 대한 슬픔과 한탄을 극복하고 미래에 남편과 같이 누릴 ‘행복’을 위해 다짐했다. 이는 당시 월남자 가족들이 주민들과의 갈등에 처하거나 많은 의심과 차별을 받아 그야말로 생활하기가 녹녹치 않았던 상황의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주민들에게 요구한 대미 감정은 항상 신체적으로 매우 뜨거운 느낌이 동반되는 적개심이었다. 폭격, 황폐화된 농경지, 가족의 죽음과 이별

---

21) 「남으로 보내고 싶은 편지」, 『개성신문』, 1956. 7. 11.

등은 모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들로서 다루어짐으로써, 모든 전쟁 피해와 상처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돌려졌다. 미공군의 폭격에 대한 공포는 지워졌으며, 슬픔과 안타까움은 적개심으로 나가기 전 단계의 감정으로 위치 지어졌다. 그리고 적개심은 다시 애국적 희망으로 나아가는 중간 감정에 위치했다.

## 2. 비참과 수치심

비참과 수치심은 남한과 관련된 감정이다. 남한사회는 비참(悲慘: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한 상황에 있으며, 이승만정권의 통치를 받았던 것은 비참한 기억이자, 그에 협력했던 경험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묘사되었다.

『개성신문』은 남한사회의 ‘참상’(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양상)을 보도했다. 『개성신문』은 남한사회의 범죄, 자살, 질병, 아사, 재난, 강도, 살인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며, 이승만정권의 폭력, 반인간성, 병마의 소굴, 암흑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sup>22)</sup> 더욱 특징적인 점은 사실에 대한 기술보다도 신체화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굶주림은 물론이고, 전염병·질병·사망 등은 항상 신체적 고통의 느낌과 더불어 표현되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와 같이 청각화되기도 했고, “암흑의 남조선”과 같이 시각화되기도 했고, “쓰라린 생활”과 같이 통증으로 묘사되기도 했다.<sup>23)</sup>

---

22) 「남반부 농민들의 참상」, 『개성신문』, 1953. 11. 11; 「암흑의 남조선 - 변영태의 『시정연설』에서 더욱 폭로된 이승만 괴뢰도당의 반 인민적 정체」, 『개성신문』, 1954. 7. 22.  
23) 「어제와 오늘 - 보건 위생면에서 본 강령군 인민들의 생활」, 『개성신문』, 1954. 7. 4; 「영예군인 정치만 동무의 로력」, 『개성신문』, 1954. 7. 18.

“더우기 오늘 남반부 농민들의 립도매매를 하며 과거와 같이 험벗고 굶주림에 헤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공화국의 품안에서 근심 없이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를 뼈에 스며들도록 깊이 느끼게 된다.”<sup>24)</sup>(강조는 필자)

남한 사회의 참상에 대한 보도는 당시 『로동신문』 등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개성신문』에서 유독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신해방지구 주민들의 과거 체험과 결부시킨 감정의 유도였다는 점이다. “6·25 해방 전의 비참하던 처지가 회상,<sup>25)</sup> “비참한 생활에서 허덕일 동포들이 눈 앞에 선하게 떠오른다”<sup>26)</sup>와 같이 신해방지구 주민들은 이승만 정권 하의 ‘비참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며 되새겨야 했다.

전쟁 중에 남하하여 이승만 정권을 잠시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다.

“적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연백땅에서 패주하게 되자 위협공갈과 기만적 선전으로 수많은 인민들을 남쪽으로 끌고 갔다. 그 틈에 섞여 남하하였던 두 여성은 (……) 더러운 소굴을 벗어나 관대한 공화국과 그리운 고향의 품안에 안기기로 결심하였다.”<sup>27)</sup>(강조는 필자)

이승만 정권은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존재로 묘사되며,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은 ‘더러운 소굴’을 경험했던 것으로, 그리고 ‘더러

---

24)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나의생활은 날로 향상되어간다. 판문군 덕수리 농민 민흥기, 『개성신문』, 1953. 12. 9.

25) 「당과 정부와 수령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기연료를 공급받은 기쁨. 가정부인 리덕복, 『개성신문』, 1953. 12. 18.

26) 「조선 예술 영화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개성신문』, 1956. 5. 11.

27) 「간첩임무를 맡고 들어와 즉시로 자수한 두처녀, 『개성신문』, 1953. 12. 5.

은 소굴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간첩 임무를 띠고 북한에 다시 온 사람들은 '관대한 공화국'에 의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선악(善惡)과 신체적 느낌이 결합되어 서술되었다.

『개성신문』에 의하면,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지에 남은 여성들은 월남한 가족(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며, 홀로 자식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로 부터 받는 의심에 대한 불안·불만이나 남편을 붙잡지 못한 후회 같은 감정은 묘사되지 않는다. 월남한 남편은 악선전에 속아서 남하한 것뿐이며, “원수들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사랑하는 남편”이 안타까울 뿐이다.<sup>28)</sup> 그 안타까움은 “살림이 안착되고 향상될수록”,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수록”, 북한 당국으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을수록” 더 커졌다.<sup>29)</sup> 이는 북한이 이승만 정권과 남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기만당한’, ‘어리석은’ 월남자 또는 ‘착취에 신음하는 피해자’로 묘사하며 해방시킬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 관련 있다.

때문에 『개성신문』에 기사화된 여성들도 “슬퍼하지만 앓으”며, 농사를 더 잘 지어 “하루 속히 통일시켜야 당신(남편)을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찰 뿐”이었다.<sup>30)</sup> “남편을 죽임의 생지옥으로 끌고간 원수놈들에게 백배 천배의 복수를 다지며” 남하한 “사랑하는 남편”이 “공화국 품안으로

28) 「당과 정부와 수령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기연료를 공급받은 기쁨. 가정부인 리덕복, 『개성신문』, 1953. 12. 18.

29) 당과 정부와 수령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기연료를 공급받은 기쁨. 가정부인 리덕복, 『개성신문』, 1953. 12. 18.; 「안타까움은 남하한 남편의 처지뿐 - 땅의 주인된 김영주 녀사, 『개성신문』, 1954. 7. 3; 「남편과 새 생활을 꾸릴 그날을 생각하며, 『개성신문』, 1954. 7. 23.

30)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개성신문』, 1956. 3. 4.

돌아”을 수 있게 전후 복구건설사업과 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수행을 위하여 열성과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다.<sup>31)</sup> 인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난 날의 자기들이 체험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남조선의 불쌍한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과 평화적 통일을 갈망했다.<sup>32)</sup>

이와 같이 비참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할 감정으로 이어졌다. 남한 사회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은 북한 사람들에게 의해 해결, 즉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만들어졌으며,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갈망을 갖도록 요구받은 것이다. 이는 ‘남조선 해방’의 명분이 되며, 남한의 ‘해방’은 다름 아닌 ‘조국 통일’에 의해서 가능하며, 북한의 인민경제 복구 건설은 이를 위한 필수가 되는 논리로 이어졌다.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실망’ 또는 ‘수치’의 감정으로 그 경험을 서술했다.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그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수치’의 감정을 느껴야 했다. 『개성신문』은 이곳의 여성들이 미군정기나 이승만정권기에는 배우지 못했다고, 개인상공인은 상공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한 실망을 표했음을 보도했다. 그러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 대해 나아가 일제에 협력한 경력은 ‘수치스러운 과거’로 표현되었다. 일제식민지기 부회의원과 미군정기 개성시 내무과장을 지낸 공진태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된다”고 하였고, 한 때 미국에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실망했다고도 했다.<sup>33)</sup>

31) 「당과 정부와 수령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기연료를 공급받은 기쁨: 가정부인 리덕복」, 『개성신문』, 1953. 12. 18; 「안타까움은 남하한 남편의 처지뿐 - 땅의 주인된 김영주 여자」, 『개성신문』, 1954. 7. 3; 「남편과 새 생활을 꾸릴 그날을 생각하며」, 『개성신문』, 1954. 7. 23.

32) 「전국 소년단원 축전에서 거둔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자! - 조선 민주 청년 동맹 개성시 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 『개성신문』, 1956. 7. 8.

33) 「공화국정부의 따뜻한 인민적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공진태」, 『개성신문』, 1953. 11. 28.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치심(shame)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sup>34)</sup> 단순히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죄책감(guilt)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는 감정이다. 공진태는 자신의 과거를 바로 ‘수치’로 인식했고, 이에 대한 반성은 ‘뺨저리게’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신체적 느낌으로 이어졌다.

비참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한통치하의 경험은 결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과거가 된다. 그리고 실망과 수치심의 서사는 명예감으로 이어지면서 구성된다. 미군정 주민·남한 국민의 경험을 실망과 수치심으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민 경험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서술된다. 후술하겠지만 북한 인민은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는 존재로서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이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곳 주민들에게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자 했던 것의 반증이다.

### 3. 행복과 명예감

행복은 북한 인민에게 요구된 핵심적인 감정이었다. 『개성신문』에는 북한 인민으로 편입된 신해방지구 주민들의 삶을 ‘행복한 새 생활’로 규정한 기사들이 넘쳐났다. 정전 직후, 전쟁의 상처가 아물 새도 없던 때, “오늘 우리공화국의 인민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고 있는 해방지구 인민들”,<sup>35)</sup> “오늘 승리의 환희와 감격 속에서” “더욱이 원썬들의 기반에서 해방되어 공화국의 떼떽한 공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즐기는 개성지구

34) 『죄책감과 수치심』, 『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42&cid=41991&categoryId=41991> (검색일 2018.10.28.)

35) 『우방 체코슬로바키야 및 파란 ‘창군절’을 열렬히 축하: 개성시민들의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성신문』, 1953. 10. 7.

인민들”<sup>36)</sup>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곳의 주민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복을 묘사했다. 개성사범전문학교에 진학한 한 학생은 “이승만통치하에서는 수업료를 못내고 쫓겨난 내가 6.25해방후 공화국의 청년”으로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했다.<sup>37)</sup>

행복은 ‘따뜻한’ ‘품’이라는 신체적 느낌과 결합되어 표현되었다. “행복의 터전”<sup>38)</sup>이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행복감을 온 몸에 느낀다.”고 묘사되었고,<sup>39)</sup> 북한당국의 각종 정책들은 ‘따뜻한 배려’ ‘두터운 배려’ 등으로 선전되었다. 판문군 봉동리의 열성농민 30명이 참석한 다수확 영농경험교환회에서 “자기들에게 토지를 주었고 영농조건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계속 가지가지의 따뜻한 배려를 돌려준” 북한당국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sup>40)</sup>

행복은 “따뜻한 조국의 품안”에서<sup>41)</sup>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제시되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행복은 명예감과 이어진다. 북한 인민이라는 명예·소속감이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명예감과 행복은 과거 남한 국민이었던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공적 감정이었다. 월남한 사람들이나<sup>42)</sup> “적의 편에 섰던 비적 간첩 기타 불순분자들”도 “공화국의 품안에 돌아와” ‘북한 인민’이라는 명예를 회복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존재들로 그려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sup>43)</sup> 행복은 사전적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며,<sup>44)</sup> 시대에

36) 「연극 ‘강화도’」, 『개성신문』, 1953. 10. 11.

37) 「자유롭고 행복한 배움의 길 - 개성사범전문학교에서」, 『개성신문』, 1953. 11. 26.

38) 「사랑하는 향토를 지켜」, 『개성신문』, 1956. 1. 10.

39) 「호정」, 『개성신문』, 1956. 3. 6.

40) 「평년도 농산물 증산을 위하여 다수확 영농경험교환회 진행: 판문군 봉동리에서」, 『개성신문』, 1953. 11. 29.

41) 「자유롭고 행복한 배움의 길 - 개성사범전문학교에서」, 『개성신문』, 1953. 11. 26.

42) 「관산마을 사람들」, 1953. 11. 13.

43) 「무경각성은 적들에게 발부칠 틈을 준다」, 『개성신문』, 1953. 10. 8.

따라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의해 느끼고 정의되는 감정이고, 북한 인민이라 하여도 개인의 행복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개성신문』에 묘사된 행복은 북한 인민으로서의 소속감·자긍심·명예감과 일치된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개성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옥은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땀뻑한 공화국의 딸로서 결의를 다음과 같이 써보냄.  
“영예로운 인민군대의 안해로서 다함없는 행복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한히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온 긍지도 드높이 방직공장에서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 일어난 영예로운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sup>45)</sup>(강조는 필자)

북한 인민으로서의 명예감과 행복감은 ‘무한’했으며, ‘끓어넘쳤다’. 감사는 담백하거나 단순한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끓어 넘치는’ 감정으로 요구되었다. “일시 국가에서 관리하던 인삼포를 반환받은 월남자 가족들과 경제적 연고자들은 끓어넘치는 환희와 감격에 잠겼다”<sup>46)</sup> 각종 군중집회와 『개성신문』의 기사들은 주민들이 현물세 면제나 교육기관 확장 정책에 대해 “끓어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북한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민군 후방가족들도 “무한한 행복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sup>47)</sup> 이러한 기사들은 신해방지구 주민들에게 ‘끓어 넘치는 환희와 감격’이라는 감정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었다.

44) 「행복」, 『표준국어대사전』 <http://ko.dict.naver.com>

45) 「군무자 안해의 편지」, 1953. 10. 11.

46) 「반환된 민간인 삼포들 - 경작자들 전부의 따뜻한 시책에 감격」, 『개성신문』, 1953. 10. 8.

47) 「군무자 안해의 편지」, 1953. 10. 11.

행복·명예감은 권리나 혜택을 부여받을 때만이 아니라 의무 수행에서도 요구되는 감정이었다. 전선(戰線)에 축기, 선물, 위문편지를 보내는 것, 북한 군과 중국군의 군복이나 침구류 세탁, 풀베기·고공품생산 경쟁 등의 전선원 호사업, 전후복구사업에의 동원, 노동, 인민군 복무 등은 힘겨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북한 인민으로서의 영예이자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표현되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휴경지가 대폭 증가했고, 포격과 폭격 등으로 농경지와 추우·주택·교량·건물 등이 파괴되었고, 북한은 전시총동원체제에 버금갈 정도로 전후 복구사업을 전개했다. 개성시내 복구건설의 경우에는 개성지역 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농민, 민청원, 여맹원별 동원은 물론, 일요일에는 사무원들도 노력 동원되었다. 학교 복구 건설을 위해 주민(시장 상인, 청년, 학생들, 학부형들)들은 금품을 ‘희사’하는 등의 물질 동원도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신해방지구 주민들을 북한 인민으로서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어 ‘행복’·‘감사’·‘보답’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활용되었다. ‘사랑하는’ “향토를 복구하는” 것은 “행복한 처지”로서, “조국의 평화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자 “공화국 공민으로서 최대의 영광”으로 선전되었다.<sup>48)</sup> 브리гада 반장도 신입 노동자들에게 기술만이 아니라 “로동에 대한 즐거움과 영예감을 가르”치고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하는 데 힘썼다.<sup>49)</sup> 이는 북한이 경제적 생산의 성과가 “인내성 있는 정치사업”과 결부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노동에 대한 영예감을 높일’ 것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된다.<sup>50)</sup>

행복은 신해방지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풍경 속에서도 시각적·청각적으로 그려졌다. “농민들의 활기 띤 모습”, “마냥 즐거운 모습”,

48) 「아름다운 향토복구에 개성시민들의 자각적 열성」, 『개성신문』, 1953. 10. 11;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이다”(북한 헌법 제30조); 「로동은 공화국공민의 영예이다」, 『개성신문』, 1954. 8. 3.

49) 「신입로동자들의 대한 나의 지도경험: 브리гада 반장의 수기」, 『개성신문』, 1953. 2. 10.

50) 「정치 선동사업을 생산사업과 밀접히 련결시켜 진행 하자」, 『개성신문』, 1953. 12. 6.

“새로운 것”, ‘트랙토르’(트랙터), 신축된 가옥·학교·진료소 등의 건물들, 전기불 등은 모두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모습들로 제시되었다.<sup>51)</sup> 전쟁 중에 월남했다가 돌아온 한 사람은 “폭격에 고향의 마을들은 변하였으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타는 의지와 희망의 빛이 넘치어 흘렀다”고 시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행복한 마을의 풍경은 청각적으로도 그려졌다. “전후 건설의 노래”는 항상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sup>52)</sup> “단란한 가정에는 명랑한 웃음꽃이 피었다.”<sup>53)</sup> “해방된 웅진반도”에서는 “행복한 세 세대들의 꽃봉오리들이 부르는 글소리, 노래소리 우렁차게 울려퍼”졌고, “건설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의 망치소리 우렁차고 전원들에서는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된 농민들의 노래소리 흥겨웁다”고 묘사되었다.<sup>54)</sup> 신해방지구는 곧 새로움, 활기, 웃음꽃, 우렁찬 (글·노래·망치)소리 등이 가득한 행복한 터전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졌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찌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조국 남반부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동포와 부모 처자 친구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원썩들의 학정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때 어느 누가 가슴 아프지 않으랴. 그러기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시금 굳센 결의를 다지며 하루 빨리 조국 남쪽 땅 인민들도 우리와 같이 한 가정 속에 행복하게 살 것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다.<sup>55)</sup>(강조는 필자)

이러한 행복감과 행복한 생활은 월남한 가족 및 남한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51) 「조국의 품에 안겨」, 『개성신문』, 1956. 7. 27.

52) 「어제와 오늘 - 보건 위생면에서 본 강령군 인민들의 생활」, 『개성신문』, 1954. 7. 4.

53) 「행복한 가정」, 『개성신문』, 1954. 7. 24.

54) 「행복한 새 세대들 - 해방된 웅진 반도에서」, 『개성신문』, 1954. 7. 7.

55) 「오늘의 행복을 나누고 싶다」, 『개성신문』, 1956. 7. 27.

했다. 1956년 8월 1일부터 초등 의무 교육이 실시되자, 『개성신문』은 사설을 통해 “암흑의 생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가여운 어린 것들을 하루 속히 미제 원썩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고 그들에게도 공화국 북반구 어린이들과 똑 같은 행복을 안겨 주자!”고 했다.<sup>56)</sup> 『개성신문』은 「오늘의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냈고, 남하한 남편이나 자식을 둔 가족들도 비슷하게 서술했다. 이는 신해방지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월남했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남은 가족들의 ‘가슴 아픔’·‘의심에 대한 불안’을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개성신문』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보고 싶어하고” “어릴 때 놀음 터가 있는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 “한 핏줄기가 갈라져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염원” 등을 “보통 조선 사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했다.<sup>57)</sup>

행복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 관련된 기사에서도 그려졌다. 개성 시립극장 예술인들은 신해방지구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나라인 소련을 동경하고 소련을 끝수 깊이 인식케하는 감정을 더욱 북돋우어 일으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sup>58)</sup> 또 개성지구 이동 영사대와 중국인민지원군 영사대는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영화를 상영했는데, 상영된 작품들에서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과 더불어 ‘행복한’ 소련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다.<sup>59)</sup> 『개성신문』의 기사는 소련예술기록영화 「건설 중에 있는 모스크바」가 모스크바의 건물, 지하철도, 공원, 학교들을 비롯해 소련사람들의 문화생활과 아동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sup>60)</sup> 아울러, 북한이 사회주의

56) 「사설: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의 거대한 사변」, 『개성신문』, 1956. 8. 1.

57) 「조국의 품에 안겨」, 『개성신문』, 1956. 7. 27.

58) 「평양 공연에서 호평받은 개성 시립극장 예술인들」, 『개성신문』, 1953. 12. 20.

59) 「호화 다채로운 영화로 개성시민들을 위문-중국인민 위문단 총단 영사대」, 『개성신문』, 1953. 11. 17; 「개성지구 이동 영사대 각 농촌들을 순회 상영」, 『개성신문』, 1953. 12. 18.

60) 「호화 다채로운 영화로 개성시민들을 위문: 중국인민 위문단 총단 영사대」, 『개성신문』, 1953. 11. 17.

진영 내에 속한 일원이라는 것도 행복감으로 설명되었다.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 있는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영광과 행복감”이었으며, “조선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일제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중국적 승리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술상 동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신뢰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sup>61)</sup>

신해방지구 주민의 행복은 소속감, 즉 명예감과 직결되는 감정이었다. 북한은 ‘행복’을 ‘북한 인민이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제시했다. 신해방지구에서 행복 감정은 이 일대 주민들의 북한 편입을 정당화하고 남북 체제 경쟁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 IV. 공적 감정의 확산·공유와 감정 공동체

##### 1. 감정 정치의 장(場)과 인민 감정의 확산

‘미국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이승만 정권 하의 비참’, ‘뼈저리게 뉘우치는 수치스러운 과거’, ‘북한 편입에 대한 눈시울 뜨거워지는 행복과 명예감’ 등은 북한 인민의 공적 감정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인민 감정의 제시·요구는 조직적으로 광범하게 또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다. 영화·연극 무대, 군중대회 및 강연, 좌담회, 마을의 게시판 앞, 시낭송대회와 같은 예술축전, 신문기자가 동석한 마을 사람들의 ‘사적’ 공간, 그리고 이를 재정리 보도한 『개성신문』 등에서 감정 정치가 펼쳐졌다. 사상정치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이 실시되었던<sup>62)</sup> 사실상의 거의 모든 공간이 감정 정치의

61) 『사설: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의 거대한 사변』, 『개성신문』, 1956. 8. 2.

62) 신해방지구의 선전선동과 정치교양사업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는 한모니까, 앞의 논문, 2016, 407~414쪽 참조.

장이었고, 선전선동은 곧 감정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연안군과 웅진군에서 전개된 선전선동사업은 그 핵심이 감정 통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안군당위원회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꾼들을 망라하여 집중적인 선전해설사업을 진행했고, 리에 파견된 선전원·선동원들은 리당위원회와 리인민위원회와 함께 군중강연, 호별방문, 개별담화, 좌담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연안군당 위원장 리종탁은 “당과 정부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며 그들이 공화국 품안에서 살고있는 긍지감과 행복과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며 (……)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승리의 신심을 높이는 데 사업의 중심을 두었다.”고 평가했다.<sup>63)</sup> 리종탁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글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그의 평가는 북한이 특정대상에 대한 특정감정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고, 선전선동사업이 그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웅진군의 리인민위원장과 리당위원장 등 리급 지도간부들도 각 마을 단위로 파견되어 성인재교육사업을 설명할 때에,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를 선전하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을 복돋우려했다.<sup>64)</sup>

군중대회는 인민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학습하는 공간이었다. 개풍읍 농민 집회에서는 “원수들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백배천배의 타격을 주도록 준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sup>65)</sup> 각종 행사의 연사들도 자신의 감정을 대중 앞에서 연설했다. 1953년 10월 1일 개교한 개성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한 한 여학생은 “리승만통치시대에 돈 없는 탓으로 뜻대로 마음

63) 「해방지구 농민들속에서의 사상 정치 선동사업 경험: 조선로동당 연안군 위원회 위원장 리종탁」, 『개성신문』, 1953. 12. 3.

64) 「동기 성인 재교육사업을 적극 추진 - 웅진군 본영리 인민위원회에서」, 『개성신문』, 1953. 11. 29.

6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는 개성지구 인민들 - 만약 원수들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백배천배의 타격을 주도록 준비하겠다 개풍읍 농민 집회에서」, 『개성신문』, 1954. 7. 4.

농고 공부하지 못하던 내가 오늘 따뜻한 조국의 품안에서 당과 수령의 은혜로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행복감을 피력했다.<sup>66)</sup>

다양한 사연을 가진 농민들로 구성된 좌담회와 영농경험교환회 등에서도 영농의 어려움이나 경험보다는 북한체제에 대한 감격·행복감 등의 정치적 감정이 공유되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부친을 잃은 농민은 원수를 갚기 위해 다수확을 다짐했고, 현물세를 면제받은 빈농은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으며, 월남자 가족은 “남편이 원수에 속아 남하”했다면서 “따뜻한 배려”에 대한 감사로 영농사업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으며,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도 “국가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했다.<sup>67)</sup> 「내각결정 제161호의 혜택을 받은 비무장지대 린접지역 농민들의 감격」이라는 『개성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의 기사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좌담회는 감격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장이었고, 『개성신문』은 이를 기사화하여 재확산시켰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 소식을 알리는 마을 게시판 앞은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의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이었다. 중국의 원조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 앞에서 한 농민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참 고마운 일이지! 얼마전 쏘련인민들이 10억루블을 주기로 하였는데 또 중국인민들이 8만억원을 주게 되니 이 기쁨을 무어라고 말하였으면 좋겠는지! 명년에는 기어코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이 은혜에 보답해야지”하고 자기의 감격과 결의를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것이었다.”<sup>68)</sup>

문화예술 분야도 인민 감정의 학습장이었다. 신해방지구의 주민들은 황해도 신천 사건을 다룬 「신천 대학살 사건」 기록영화를 보고, 귀환병들과의

66) 「자유롭고 행복한 배움의 길 - 개성사범전문학교에서」, 『개성신문』, 1953. 11. 26.

67) 「내각결정 제161호의 혜택을 받은 비무장지대 린접지역 농민들의 감격: 본사주최 비무장지대 분계선 린접지역 농민 좌담회에서」, 『개성신문』, 1953. 11. 4; 「명년도 농산물 증산을 위하여 다수확 영농경험교환회 진행: 관문군 봉동리에서」, 1953. 11. 29.

68) 「마을에 환호소리 드높다 - 게시판 앞에서」, 『개성신문』, 1953. 11. 29.

좌담회를 통해 미군의 비인도적 포로 대우 증언을 듣고, 이에 대한 기사를 『개성신문』을 통해 다시 접했다. 신천 사건 영화를 보고 “다시금 똑똑히 (……) 인간도살자 미제의 정체를 보았다”고 말한 한 상인은 영화에서 본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귀환병들의 증언과 부상당한 귀환병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는 간접 체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개성신문』 기사를 통해 그의 간접 체험은 ‘증명된 사실’로서 재생되었다. “추운 겨울 얼음판 위에서 얼려 죽이는” 모습과 북한 선택 포로를 “기관총과 땅크로 위협하면서 대량으로 남해바다 속으로 빠뜨려 죽”이는 미군의 모습과 미군의 “세군무기 사용의 시험대로 되어 팔 다리를 잃고 두 눈을 잃은 동무들”과 같은 미군의 잔혹함과 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들이 거듭 반복되었다.<sup>69)</sup>

시 낭송 대회에서도 감정을 읊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낭송자들은 개성지구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약동하는 감정으로 읊었다.” 1등 입상자인 개성직물공장 수애 연구소원 공수성은 “조국과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고야 말 인민들의 드높은 결의와 투지, 미제와 리승만 역도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담은 시 ‘10년’을 낭송”했고, 공동 1등 입상자인 개성식료품종합공장 노동자 양말현은 ‘우리의 심장은 언제나 당과 함께 있다’는 시의 “벽찬 감정을 생생하게 읊었다.”<sup>70)</sup>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감정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교과서는 물론 아동작품을 제작하는 예술문화인들은 “공화국의 어린이로서 자유히 행복하게 자라나는 해방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애국사상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교양”했다.<sup>71)</sup> 북한 각지에서 선발된 11개 단체 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술 축전에 참가했는데, 이때 개성지역 소년단원들도 참가하여 ‘새로운 조국’에 대한 ‘불타는

69) 「미제가 조작한 소위 [만행] 소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상인 리홍복, 『개성신문』, 1953. 12. 18.

70) 「개성 지구 시 낭송 대회, 『개성신문』, 1956. 3. 14.

71) 「아동문학과 아동들의 정서 교양에 대하여, 『개성신문』, 1953. 12. 5.

조국애'를 묘사하는 공연을 했다.<sup>72)</sup>

곧 신해방지구 주민들에게 애국주의적 사상교양을 광범히 진행했다는 것은 곧 사상정치교양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가 긍지감과 증오심, 승리의 신심 등 북한이 표준화한 감정을 가진 인민의 탄생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각종 선전선동사업은 인민 감정의 학습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2. 감정 변화의 서사와 '한결같은 마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 신해방지구 주민들의 감정 변화를 기사화한 『개성신문』의 서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북한체제와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감정 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과 '늬우침'의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국정부의 따뜻한 인민적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공진태,  
(……) 나는 일제시대에는 '부회의원'이란 일체의 충실한 협조자이었으며 8·15 해방후 1년여 반 미군정시대에는 개성시 '내무과장'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봉사한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오늘 나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된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실망들. 인종차별. 그래서) 나는 이 더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지금 나는 공화국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자유롭게 삼포를 운영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체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해방지구 인민들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배려를 직접 눈으로 보는 나는 날이 갈수록 공화국정부의 진정한 인민적 시책을 똑똑히 엿볼수 있었다. (……)<sup>73)</sup>(강조는 필자)

72) 「귀여운 어린이들의 축전 성과를 축하합니다」, 『개성신문』, 1956. 7. 8.

73) 「공화국정부의 따뜻한 인민적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공진태」, 『개성신문』,

위의 예는 앞서도 언급했던 공진태의 서사이다. 그는 개성의 대표적 유지였다. 그는 일제하와 미군정기의 경력에 대해 ‘수치스러운 과거’로서 ‘빠져리게 뉘우치고’, 북한의 ‘두터운 배려’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미군정기와 이승만정권과 대조되는 ‘행복’한 생활에 감사한다고 서술했다. ‘뉘우침’은 북한 체제와는 이질적인 혹은 북한의 기대와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품었던 이들이 북한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둘째, 뉘우치거나 변화한 사람들의 확산이다. 아래는 월남한 남편이 있는 여성의 감정 변화와 모범적 삶에 대한 『개성신문』의 기사이다.

이제 스물한살난 진세홍동무는 어려서부터의 엄한 본가살이에서 부엌일이 그의 일상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가 사는 화곡리가 따뜻한 공화국의 품안에 영원히 안기게 되자 행복에 찬 새 생활이 벌어졌다.

마을 한글학교에도 다니게되어 차차 눈을 뜨게 되었고 흥미있는 민청녀맹생활도 즐기게 되었다.

“너자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 대문밖을 자주 드나든다고 역정하는 부모를 설복해가며 그는 리 여맹위원장 마옥경동무를 받들어 마을 여맹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다만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원수들의 총칼의 위협을 받으며 남쪽으로 끌리여간 남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남편을 남으로 끌고간 원수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애국적 증산의욕으로 바꾸어안고 일어섰다.

즉 진세홍 동무는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농사일에 온갖 열성을 다하였다. (……) 힘든 농사일도 지금은 썩 익숙해져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는 진세홍 동무는 마을 여맹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9월에는 화곡리 여맹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남편이 남하한 서정순동무 그리고 두순덕 김옥순 등 맹원들을 계통적으로 교양하는 한편 전체 여성들을 수령의 교시실천을 위한 전후

---

1953. 11. 28.

복구건설에 힘차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sup>74)</sup>(강조는 필자)

모범인민은 마을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으로 그의 심성과 실천은 확산되었다. 한글학교와 민청·여맹 사업에 적극 참여한 “자기 남편을 남으로 끌고간 원수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애국적 증산의욕으로 바꾸어 안고 일어”서 “힘든 농사일도 지금은 펴 익숙해져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는” 한 여성은 “마을 여맹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화곡리 여맹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더구나 이 여성은 자신과 같이 월남한 남편이 있는 다른 여성들을 ‘계통적으로’ 교양하는 한편 그들을 전후 복구건설에 참여하도록 고무했다.<sup>75)</sup> 판문군 월정리의 한 모범농민은 “마을사람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그의 선도적 역할은 반내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무한히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뒤를 따르는 반원들”<sup>76)</sup>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모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따라하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완고한 노인”들도 감정의 변화를 느꼈고, 그것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했다.

나는 수일 전 개성에서 열렸던 개성 지구내 당·사회 단체 및 사회 인사들의 련석 회의에 참석 하였었다.

나는 이번 련석 회의에 참석하고 공화국 정부가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내가 련석 회의에 갔다가 돌아 오던 날 내가 방문을 열어 놓고 눈 앞에 보이는 림진강 건너 장단 땅을 바라보면서 남으로 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권 행규과 이 하종이가 찾아 왔었다.

74) 「리 녀맹위원장으로 선거된 진세홍 동무」, 『개성신문』, 1953. 10. 9.

75) 「리 녀맹위원장으로 선거된 진세홍 동무」, 『개성신문』, 1953. 10. 9.

76) 「월정리에서 이름난 모범농민 민접식 동무」, 『개성신문』, 1953. 10. 9.

나는 그들이 묻기도 바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 열렬한 토론문과 한 만복씨가 울면서 하던 토론문을 밤 늦도록 이야기하여 주었다.

우리 집에 외었던 여러 친우들과 통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럼요. 아무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지요” 이렇게들 말하면서 남으로 끌리어 간 자식과 남편들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

나는 전번 개성 지구 관광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양 방직 공장,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안주에 있는 ○○ 삼천리별을 보고, 지난날 집에만 앉아서 “복구된다”, “건설된다”는 이야기들을 그리 탐탁하게 듣지 않았던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 일일이 이렇게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공화국 정부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내 자신을 이제는 많이 뉘우쳤다.

(……)

나는 있는 힘을 다 바쳐서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힘껏 일할 결심이다.<sup>77)</sup>(강조는 필자)

위 기사에 의하면, 아들이 월남하고,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는 판문군 대령리의 한 노인은 여러 체험들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개성지구 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토론자들의 열렬하고 격정적인 토론을 듣고, 집에 돌아와 임진강 건너 장단 땅을 바라보고 월남한 아들을 생각한다. 그때 비슷한 월남자 가족들이 찾아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자신들의 인식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신해방지구 사람들은 미국, 남한, 북한, 가족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와 공적 감정을 학습하게 된다.

---

77) 「모든 힘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해 바치겠다 - 판문군 대령리 11반 서효중, 『개성신문』, 1956. 7. 4.

김현중 농민은 지금 마을의 열성농민들과 함께 힘껏 일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화국에서 사는 나의 행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나의 이 행복을 빼앗으려는 원수에 대하여 나는 그들이 우리 조국 땅에서 물러서는 날까지 힘껏 싸워 나아가겠다.”<sup>78)</sup>(강조는 필자)

이것이 곧 당신과 만날 수 있는, 평화적 조국 통일을 빨리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 혼자의 념원이겠어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진심으로부터 울어 나오는 하나의 념원이랍니다.<sup>79)</sup>  
(강조는 필자)

“지난날처럼 살 수야 없지요! 모든 게 다 나라의 은덕이지요!”

이날 저녁 조합을 방문하였을 때 조합원들은 이야기 끝에 이렇게 덧붙이었다.  
이것은 오늘 이 별 전체 농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sup>80)</sup>(강조는 필자)

위의 자료에서 기자는 “전체 농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전체 농민들이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즉, 북한은 이와 같은 서사들을 『개성신문』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회상’하고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에 ‘감사’할 것을, 북한체제에 ‘신뢰’를 갖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하며 전후복구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증산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신해방지구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진 개인들을 적개심·비참·수치심·행복·명예감 등의 동일한 공적 감정을 인지하고 표출할 줄 아는 북한 인민으로 만들어갔다.

78) 「행복한 김현중 농민」, 『개성신문』, 1953. 12. 18.

79) 「남으로 보내고 싶은 편지」, 『개성신문』, 1956. 7. 11.

80) 「현지보도 - 전변되는 마을」, 『개성신문』, 1956. 7. 31.

## V. 맺음말

신해방지구 『개성신문』은 북한의 인민 만들기가 감정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통제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감정들을 키우거나 억제시켰고, 감정을 신체와 직결시킴으로써 감정의 신체적 각인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신체화된 특정의 감정들은 집단적으로 공유되었다.

첫째, 북한 인민으로서 느끼고 표출할 공적 감정에는 반미 감정만이 아니라, 비참·수치심·실망, 행복·명예감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었으며 감정들 사이에 위계화가 이루어졌다. 반미 감정의 핵심으로서 적개심이 키워진 반면, 미공군의 폭격에 대한 공포심은 억제되었다. 가족·농경지를 잃은 슬픔·한탄·안타까움은 그러한 상황을 유도한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는 하위의 감정에 위치 지어졌고, 적개심은 명예감·애국심으로 이어지는 중간 감정에 위치되었다. 남한과 관련된 비참이나 실망·수치심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인민’이라는 명예감과 행복으로 이어졌다.

둘째, 감정들은 시각·청각·촉각 등의 신체적 감각들과 결부되어 묘사되었다. ‘피바다’를 만든 ‘인간도살자’에 대한 ‘불타오르는’ 적개심, ‘빠저리게 뉘우치는 수치스러운 과거’, ‘눈시울 뜨거워지는’ ‘무한한’ 감격·행복, ‘우렁찬 활기찬 소리’ 가득한 행복한 터전과 ‘따뜻한 품’ 등의 묘사들은 북한 사람들의 공적 감정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느낌과 직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반복 학습은 특정 대상에 대한 연상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신체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셋째, 북한에서 선전선동이 전개되었던 거의 모든 공간이 감정 정치의 장이었다. 이 글의 주된 분석대상인 『개성신문』은 물론이고, 영화·연극 무대, 군중대회 및 강연, 좌담회, 시낭송대회, 마을 게시판 앞, 마을 사람들의 ‘사적’ 공간 등에서 감정 정치가 펼쳐졌다. 이곳에서 신해방지구 주민들은 표준화된 인민 감정들과 감정 표현들을 학습했다.

넷째, 북한은 ‘북한 인민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하나의 염원’을 갖는 감정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한국전쟁에 의해 북한에 편입된 신헌방지구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 중에는 북한체제와는 이질적이거나 반공적인 사람들이 존재했다. 북한은 이곳 주민들을 의심하는 한편 흡수하고 체제에 대한 지지자로 만들고자 했다. 신헌방지구에서 전개된 감정 정치는 북한이 감정을 통제하고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이곳 사람들을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북한 인민으로서 미국·남한·북한·한국전쟁·이산가족 등 각각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와 감정을 드러내야 했고, 반공적이었던 사람들도 ‘늪우침’과 감정의 변화의 서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며 공유해야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북한이 만들고자 한 인민 감정으로서, ‘북한 인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표출해야 하는 표준화된 공적 감정이다. 흔히 북한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표준화된 인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는 해방직후부터 북한이 기획한 인민 만들기의 연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해방직후 북한은 평범한 보통의 인민들을 표준적·모범적 인민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sup>81)</sup> 신헌방지구에서는 남한국민이었던 이곳 사람들을 북한인민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 더하여 표준화된 공적 감정이 활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사람들의 감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공적 감정들을 그대로 내면화했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의 감정과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공적 감정과 더불어 그에 대한 반응 및 변용 등의 사적 감정들에 대한 분석, 나아가 다른 시대 및 사회의 감정 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진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81)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중 「인민대중의 창출」, 푸른역사, 2017.

## 참고문헌

### 1. 자료

『개성신문』(1952~1956)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

『심리학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

김일성, 「1952년도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며 신해방지구의 당 및 정권기관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전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1953년 9호.

김일성, 「개성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및 경제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리택정, 「신해방지구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철저히 이행할 데 대하여」, 민주조선사, 『인민』 1954년 1호.

조순, 「해방지구의 과거와 현재」, 민주조선사, 『인민』 1954년 10호.

### 2. 연구논저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韓國史研究』 144, 2009.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開城: 교류와 갈등의 이중 공간」, 『學林』 31, 2010.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김학이, 「감정사 연구의 지평: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연구』 28, 2014.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문수현, 「‘감정으로의 전환(Emotional turn)’?: 감정사 연구 성과와 전망」, 『서양사론』 96, 2008.

박소영, 『개성 각쟁이의 사회주의 적응사』, 선인, 2012.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한길사, 2015.

송경록,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 푸른숲, 2000.

- 이준희, 「한국전쟁 前後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촌사회 변화」,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진일, 「지리화된 민족주의와 영토: 감정사적 접근」, 『동북아 영유권 갈등과 ‘지리화된 민족주의’』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8.
- 잭 바바렛 편,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 정영철,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신아세아』 18(2), 2011.
- 한모니까,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2015.
- 한모니까, 「남북한 ‘수복지구’·‘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비교: 국민/인민 전환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23, 2018.
- 한모니까,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정책과 그 특징」, 『역사문제연구』 36, 2016.
-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 한봉석, 「조선소년단 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민화’ 과정」, 『역사문제연구』 24, 2010.
- Peter N. Stearns, “Emotionology: Clarifying the History of Emotions and Emotional Standard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0, 1985.

---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S MAKING OF THE *Inmin*(人民)  
AND EMOTIONAL POLITICS :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THE NEW LIBERATION AREA

HAHN MONICA (HAHN, MONICA)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th Korea's making of the *Inmin*(人民) in terms of emotional politics. This analyzes the emotional languages and narrative structure appearing in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newspaper “Kaeseong Newspaper” published in the “New Liberation Area” and characterizes the public emotions of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rolled not only the people of North Korea, but their emotions. The emotions around certain subjects were either raised or suppressed; for example, the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feelings of disgrace and disappointment over the experience of Rhee Seung-man's regime, and the happiness and honor of sharing an identity as the North Korean people. There was a hierarchy among these emotions with the highest level of emotion being happiness and honor. The descriptions of emotions themselves, such as 'burning hostility', 'a shameful past that raches like a sore bones', and 'happiness that feels like warm tears,'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 physical feelings. This means that the association with a particular subject does not simply create emotion but leads to an immediate physiological reaction. Almost all the space and media in which

propaganda and agitation had spread were the fields of emotional politics. North Korea has made individuals with complex emotions and various backgrounds in the New Liberation Area a “emotional community” with a “unified mind” for all North Koreans.

Key Words : *Inmin*(人民), Emotional Community, Hostility, Fear, Shame, Sadness, Happiness, Honor, Propaganda and Agitation, Korean War